

# 사설

## '통도사 문제'의 해법

조계종 중앙총회가 통도사에 설치된 영축총림을 해제하고 문수사 등 3개 말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키로 결의한 것은 중단분규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조계종 사태가 마무리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조계종이 여전히 대화회를 통한 대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총회의 이번 결의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정화개혁회의의 본지가 격인 통도사만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통도사는 종단의 인사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특정인사가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무리를 빚어왔다. 종단으로서의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조계종이 취한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사부대중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다. 불자들은 총회가 취한 태도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수긍하면서도 과연 총림해제와 직영사찰 지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통도사가 삼보사찰로 꼽히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찰인데다가 이곳의 방장이 전종정인 월하스님이기 때문에 총림해제 자체가 불교위상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 점이다. 또 이를 계기로 집행부와 통도사가 맞설 경우 또다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조계종 집행부도 이 점을 걱정해 그동안 통도사 문제에 관한 한 급속 강경수단 동원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전말이 어찌됐든 이제 관심은 통도사측이 종단방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법은 통도사측이 고신스님 집행부가 강조하는 '무차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종단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완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단이 최후의 압박수단인 통도사 총림해제를 결의하자 월하스님은 정화개혁회의측 인사를 중심으로 일선불사의 태도를 보인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한술 더 떠서 지난해 조계사에서 벌어졌던 목불인견의 싸움을 천년고찰 통도사에서 재연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문건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상황이 반드시 나쁜 쪽으로 발전할 리는 없겠지만 만분지 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불자들은 다시 한번 불조면도본(佛相面塗糞)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도사나 조계종 집행부에 대해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매우 상식적인 말이지만 출가하던 때의 초발심(初發心)을 상기해 달라라는 것이다.

일체의 세속적 야心和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심(下心)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출가자의 진정한 권위는 야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랑과 겸손에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희망은 이 문제가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도사에 다시 영축총림이 복원돼서 이 나라 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교는 더이상 세속의 중심에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법은 통도사측이 고신스님 집행부가 강조하는 '무차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종단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완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단이 최후의 압박수단인 통도사 총림해제를 결의하자 월하스님은 정화개혁회의측 인사를 중심으로 일선불사의 태도를 보인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한술 더 떠서 지난해 조계사에서 벌어졌던 목불인견의 싸움을 천년고찰 통도사에서 재연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문건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상황이 반드시 나쁜 쪽으로 발전할 리는 없겠지만 만분지 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불자들은 다시 한번 불조면도본(佛相面塗糞)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도사나 조계종 집행부에 대해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매우 상식적인 말이지만 출가하던 때의 초발심(初發心)을 상기해 달라라는 것이다.

일체의 세속적 야心和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심(下心)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 출가자의 진정한 권위는 야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랑과 겸손에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의 한결같은 희망은 이 문제가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도사에 다시 영축총림이 복원돼서 이 나라 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교는 더이상 세속의 중심에 할말이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 조계종 총회 또 파행운영

## 탄우스님 제명 놓고 계파간 힘겨루기 신도교육법등 중요사안 논의조차 못해

7월 26일 개최한 조계종 141회 임시총회가 회기 첫날부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못해 30일 자동 폐회됐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총회의 회의시간은 3시간 50분에 불과했다.

파행운영의 원인은 총회의 원인 탄우스님 제명을 둘러싼 총회내 그룹간의 의견차이 등의 때문이었다. 12대 총회의원들의 총체모임인 일여회(회장 세영)와 청림회(회장 성관)는 26일 "지난 종단사태와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회의원이 보결선거를 통해 다시 총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정회(正會)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부터 효율적인 의사행위를 위해 날짜별로 심의할 안건을 정하는 등 새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장과 사무처의 노력이 있었던 터라 후유증도 예상된다.

만을 표시했다. 일여회와 청림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탄우스님의 총회의원직 사퇴 △총무원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시 △동국학원 이사 후보 재선정 등을 요구했다.

총회의장 범동스님은 회의가 열리지 못한 27~29일 회의장에 나온 20여명의 총회의원들을 향해 "내일 10시에 속개하겠다. 유회를 선언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30일에는 141회 임시총회가 자동폐회됐음을 선언했다.

총회 내 그룹간의 세겨루기 등 총회가 자동폐회되자 일부에서는 "11대 총회처럼 '유회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부터 효율적인 의사행위를 위해 날짜별로 심의할 안건을 정하는 등 새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장과 사무처의 노력이 있었던 터라 후유증도 예상된다.



7월26일 회기 첫날부터 파행운영에 들어간 조계종 총회.

141회 총회가 파행운영됨에 따라 집행부 업무추진이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포교원이 제출한 신도·포교 관련 총법 제·개정안이 어렵게 돼 신도 교육 및 조직화, 각종 포교정책 수립이 늦어지게 됐다. 군당국의 김태복 장군에 대한 종교권향행위 시정 촉구결의, 건국법 8조 4항 폐지에 따른 대제일법 정부 촉구결의도 불발로 그쳤다. 20여년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인준도 미뤄지게 됐다. 차기 총회(9월에 임시총회가 열리는 미경)로 미뤄질 경우엔 선학원 이사 회에서도 인준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로의 이전 및 재원미련을 위한 토지처분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총무원과 중앙승가대 학인 동문 간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1면 '총회'서 이어짐

#### 사면복권안 등의

■석남사 종립특별선원 지정 석남사의 요청에 따라 총무원에서 총회에 등의 요청을 했다. 지명, 세영, 정남 스님 등이 "봉암사 선원이 유일한 종립선원인데, 환경문제를 이유로 '종립'을 지정하면 다른 사찰의 경우보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이 해결되면 종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원로의원 10명 추천  
▲천운(광주 함양리) ▲청화(광주 정광사) ▲이두(청주 관음사) ▲해경(법주사) ▲지관(경곡사) ▲활안(송광사 천자암) ▲원명(대구 관음사) ▲고봉(해인사) ▲덕명(안적사) ▲대정(법어사)

■탄우스님 제명 부결  
현총무원 등 36명의 총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탄우스님 제명의 건은 표결 결과 제명 찬성 37표, 반대 28표로 부결됐다. 총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2/3(현재 재적의원이 78명)으로 5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사면복권안 등의

총무원 호법부가 제출한 사면복권안 5명, 사면 9명, 복권 2명의 동의를 요청에 대해 원대로 통과시켰다. 호법부는 63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징계처분 말년자를 제외한 68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실질심사를 해 최종 대상자 1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면 복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재적분사)  
정광(조계사), 도홍( ), 원정( ), 보관( ), 창인(백양사), 정암(수덕사), 수일(해인사), 종연(백양사), 승일(마곡사), 명선(조계사), 동과(백양사), 태진(신홍사), 연국(봉선사), 법우(관음사), 성진(은혜사), 종업(화엄사)

## 중신회장 선거 2파전 백창기-김한곤씨 각축예상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24일 신도회장 후보자 추천서 교부가 끝났기에 따라 후보는 백창기(67, 아스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와 김한곤(65, 前충남도지사)씨 2명으로 압축됐다.

대의원들의 후보추천서를 받고 있는 백창기씨는 최근 '중앙신도회 대의원 님들께'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상 중앙신도회가 몇몇 개인의 야심에 이용된다거나 종단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파행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부처님을 처음 만난 날의 순수하고 환희에 찬 첫마음을 되찾고 지키는 일에 마지막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백씨는 전복대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 서울 한양여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건설업에 종사해 왔다. 30년전 경남 하동 쌍계사를 신도장으로 삼아 불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신행만을 펼쳐왔다. 현재 수운회관 맞은 편 신화빌딩 2층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활동중이다.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한곤(前중앙신도회장 직무대행)씨는 7월 22일 열린 수덕사 신도회 임원수련회에 참석, 중앙신도회장 출마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수덕사 주지 범장스님도 김씨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김한곤씨는 농림수산부 차관, 충남교사를 역임했으며, 이후 건설업에 종사해 왔다. 30년전 경남 하동 쌍계사를 신도장으로 삼아 불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백창기씨



◇김한곤씨

#### 안대 초빙교수로서 강단에 설 예정이다.

한편 또다른 후보로 거론되던 손현수 전국불교선학인연합회 회장은 '총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후보 등록을 포기해 지난 3월13일 대의원총회에 이어 이번 중신회장 선거는 백창기 김한곤 후 2파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 조계종 행자교육원

입교지원 282명 접수  
통도사 행사 20여명 포함

남행자 159명, 여행자 123명이 7월23일자로 마감된 제17기 행자교육원 입교지원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해 말 조계종 분류사제로 입교가 거부되었던 통도사 행사자들도 제17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27일 중앙총회가 통도사 행정재해 해제를 결의하고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통도사 행사자들의 행자교육원 입교 허가를 결의함에 따라 교육원은 오는 8월17일 교육원회의를 거쳐 통도사 행사 20여명을 행자교육원에 입교시킬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 승가학원 이사 8명 선임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고산)은 7월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성태(불국사 주지), 서주(소림사 주지), 명훈(금정사 주지)스님과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에 유임시키고 광복(도선사 주지), 성본(동국대학교수), 원종(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을 새 이사에 선임했다.

김재경 기자

## '전사법 개정안' 의원발의 협의

#### 여·야 불자회 회장단

새정치국민회의연동회(회장 박상규의원) 자민련불자회(회장 박철연의원) 한나라당불자회(회장 함종환의원) 등 3개당 불자

회 회장단은 6일 오전 7시30분 63빌딩 백미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신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강원교직자회 창립

##### 초대회장에 지오스님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조계종 전국 16개 강원 교직자 20명은 7월30일 해인사에서 그간 비상설로 열리던 전국강원(승가대)교직자회를 정식으로 창립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서 강원교직자회를 교육원에 정식 등록키로 하고 새 회칙도 제정했다. 또 초대회장에 해인사 강주 지오, 부회장에 송광사 강주 지운, 청암사 강주 지형스님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이전에 우리의 입장

중앙승가대학교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여 자기화,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 민족화, 인류화 하기 위해 지난 79년 중단 유일의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교가 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단의 관심과 후원도 있었지만, 승가의 화합정신과 애교심에 불타는 9백여 동문스님과 재학생·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불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화합보다는 분열이, 포교보다는 자기화된 설법과 개인주의가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승가공동체의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올해로 중앙승가대학교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보현사, 영화사, 현 안암동 개운사로 옮겨 다니며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열악한 환경과 재정난 속에서 견뎌왔다. 그럼에도 중단이 혼란과 분열 속에 있을 때마다 본교는 중단의 안정을 위해 중심부에서 있었다. 한때 극소수의 스님들이 본교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중단을 위해 본교의 회생을 강요하면서도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학사 이전을 미루고 견제하고 있는 중단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고신 총무원장(본교 이사장)스님은 김포학사 이전을 언론에 공포하여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라.

지금 본교가 추진하는 김포학사 이전은 교육불사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안암동 학사는 좁은 기숙사와 철문으로 학인들은 갈린 공간 속에서 생활해 왔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수행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청정 수행풍토가 조성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은 동문스님들과 재학생 스님들의 부분 가슴속에 21세기 한국불교 교육과 포교의 날개가 될 김포학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30일 김포학사가 완공되었다.

한국불교 최대의 교육불사라고 자랑하던 때가 엇그제인데 지금 고신 총무원장(본교 이사장)은 김포학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화된 발표를 미루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본교를 왜해시키려는 갖가지 소문 또한 나돌고 있다.

고신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다. 그러나 본교의 동문·재학생 스님들은 총무원장 보다는 이사장 스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스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을 보좌하는 몇몇 스님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의, 심의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대중적이고 승가적 모습으로 본교의 김포학사 이전을 다루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중단 현실이 어렵더라도 역대 어느 총무원장 스님이 하지 못한 교육 불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길 바란다.

2. 김포학사 이전불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김포학사 이전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책임은 총무원에 있으며 동문 재학생 모두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본교가 지금껏 못한 도량을 찾아 다녔지만, 어느 본사 어느 스님이 중단 교육을 위해 선뜻 부지를 기증하겠다고 한적이 있는가.

김포학사로 반드시 본교가 이전해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논의도 배격할 것이다. 단일 빠른 시일 내에 학사 이전이 이뤄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총무원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한편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김포학사 활용방안"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스님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그리고 스님의 특정 신분과 친소를 이용하여 이전불사를 방해하는 불순한 언행을 일삼는 스님들이 있다면 9백여 동문과 재학생 스님들은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 단호히 배격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3.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는 승가대 이전 마무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집단이기주의, 문종파별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 중단의 상황이다. 그러나 조계종 최고의 의결기구인 중앙총회는 개인과 문종의 이익을 떠나 중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승가교육을 단순한 산업원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백년을 내다보는 원대하고 장기적인 불사로 인식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승가대 이전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 4. 총무원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라.

앞으로 미래불교는 다변화, 전문화, 정보화된 체계적인 불교로 다가올 것이기에 구체적인 실천과 방향제시가 필요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중단 교육 또한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중생교화에 용맹정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포학사 이전은 필수적이다.

학인들 또한 학인의 본분사인 수행과 교육을 위해 오로지 승가공동체의 모범적인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본 중앙승가대학교는 개인의 것도 아니고, 문종의 것도 아닌 조계 중단의 모든 스님들이 모이는 교육도량이다.

지금까지의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도 아니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청년승가의 수행풍토 조성과 정제된 교육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탈피하여 부처님의 정신을 체득하려는 절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총무원장 스님은 깊이 인식하여 승가교육의 모범적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3년 7월 일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